『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13
pp.209-230 ISSN : 1229-9618

강유위의 대동사상의 사상적 함의와 중국적 사회주의의 현대화의 연관성

金賢珠*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사상적 배경
3. 유토피아로서의 대동
4. 정치적 실험으로서의 대동 : 모택동의 "신촌"운동과 인민공사
5. 끝맺는 말

【초록】
강유위(1858-1927)는 서방열강의 중국침략으로 중국이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하고 중국 민족이 생존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대동사회를 구상하였다. 그는 당시 중국사회를 "끝없이 푸른 하늘과 넓은 대지는 큰 도살장이며 감옥일 따름"(『대동서·甲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동사회이다.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동서양 사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공자의 대동사상, 공양삼세설, 인(仁)사상 등과 서구의 천부인권론과 공상적 사회주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형성된 그의 공상적 사회주의는 유가사상을 통한 사회주의의 공고화를 도모하는 중국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데 사상적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키워드】 강유위, 대동, 공상적 사회주의, 모택동, 중국사회주의

*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mir8566@naver.com)

1. 들어가는 말

강유위(康有為)는 홍수전(洪秀全), 손중산(孫中山) 등과 함께 중국 근대의 대표적인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봉건적 질서의 붕괴와 전통적 소유관계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의 성격을 보여준 동시에, "대도지행야, 천하위공(大道之行也, 天下為公)"(『예기·예운』)의 대동사상을 기치로 내세워 전통적 평균주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중국 근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중 강유위는 그중에서도 가장 유가사상에 입각한 공상적 사회주의를 구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대동사상은 동서양 사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공자의 대동사상, 공양삼세설, 인(仁)사상 등과 서구의 천부인권론과 공상적 사회주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1]

이렇게 형성된 강유위의 공상적 사회주의는 유가사상을 통한 사회주의의 공고화를 도모하는 중국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데 사상적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근대 중국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여러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20세기 초 중국인들이 외래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오늘날 중국사회주의의 현대화와 세계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 사상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사상적 배경

근대중국에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대표적 인물로는 홍수전, 강유위, 손중산 등이 있다.[2] 이들의 사상적 여정은 홍수전이 천조전묘제도(天朝田畝制度)를 반포한 이후 손중산의 죽음까지 70년 정도로 서구 공상사회주의 역사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3] 이들 중국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공통점은 평균주의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균주의에 대한 요구는 그들에게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정치가인 안자(晏子)는 "옛날 성군은 그 재산을 취함에 있어서 권력의 유무와 빈부의 균등을 고려함으로써 기호나 욕심을 키우지 않았다.([古之盛君]其取財, 權有無,

---

1) 물론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루소의 불평등기원론, 천부인권론, 불가사상 등 공상적 사회주의와 유가사상 이외에도 동서양에 걸쳐 수많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현대 중국의 대동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사상적 기원으로서 강유위 대동사상을 논하고자 공상적 사회주의와 유가사상에만 한정하여 논하고자 한다.

2) 홍수전, 강유위, 손문의 대동사상은 모두 공상사회주의자로 규정되는데, 그들은 첫째 형식적으로 모두 "천하위공"의 이상사회 건설을 주장하였다는 점, 둘째 내용상,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는 점, 셋째 성격상 유토피아적 공상사회주의라는 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操申斌, 「近代中國大同思想的比較研究及其啟示」, 『安徽史學』, 第6期, 2005.

3) 韓力, 「近代中國空想社會主義思想評述」, 『黑龍江教育學院學報』1, 1996.

均貧富, 不以養嗜欲.)"(『안자춘추(晏子春秋)·內篇問上』)라고 하였고, 공자는 "내가 듣기에, 나라가 있고 집이 있는 자는,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음을 걱정하였으며,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되지 않음을 걱정하였다. 무릇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화합하면 (인구의) 적음이 없으며, 안정되면 기울어짐이 없다."[4]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모두 '균등함(均)'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말(唐末)의 황소(黃巢), 북송(北宋)의 종상(鐘相), 그리고 명말(明末)의 이자성(李自成)은 모두 평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청말 태평천국(太平天國) 운동은 "무릇 천하의 토지는 천하인이 공동으로 경작한다.(凡天下田, 天下人同耕)"고 주장하면서, 『천조전묘제도』를 반포하고 평균주의를 실천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이것은 농민들의 요구인 절대적 평균주의 반영한 것으로, 강유위의 대동사회이상은 중국의 그러한 전통적 평균주의 사상과 근대 서구의 공상사회주의사상의 평등 관념과 결합[5]한 것이다.

우선 강유위의 평균주의 사상은 공자의 대동사상에서 비롯되었다. '대동'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상서·홍범(尙書·洪範)』에서였으나, 그것이 이상사회의 모델로서 제기된 것은 『예기·예운』에서이다.

>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위공, 선현여능, 강신수목이 이루어진다. 그리되면 사람은 자신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늙으면 생을 마감할 곳이 있고, 젊으면 쓰일 곳이 있으며, 어리면 길러줄 곳이 있으며, 과부, 홀아비, 고아, 병든 이들 모두 돌봐줄 곳이 있고, 남자는 일이 생기고, 여자는 집이 생긴다. 재화는 땅에 버려지지 않고, 따로 모아둘 필요도 없다; 힘은 스스로부터 나와야 하지만, 스스로를 위해서만은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사라지고, 도적이 생기지 않으니, 문을 열어두고 닫지 않아도 되니, 이를 대동이라 한다.[6]

여기서 대동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제시된 것은 "천하위공", "선현여능", "강신수목", "화오기기어지야, 불필장어기; 역오기불출어신야, 불필위기(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為己)" 그리고 "부독친기친, 부독자기자(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남유분, 여유귀(男有分, 女有歸)"이다. "천하위공"과 "선현여능"은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원칙을 의미한다. 천하를 사적으로 전유하는 것에 반대하고 공적인 대상으로 보는 '천하위공'은 전형적인 유가적 마인드이다. 그리고 '선현여능'은 '공천하'를 이룩할 통치주체에 대한 정당화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중국 공화정치[7]의 핵심을 이룬다.

강유위는 서주(西周)시기 주공단(周公旦)과 소공석(邵公奭)이 공동으로 정치를 하였던 것—

---

4)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貧而患不均, 不患寡而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論語·季氏』
5) 王存剛,「近代中國空想社會主義與傳統的大同思想和均平思想」,『天津職業大學學報』, 第1期, 1995.
6) "大道之行也, 天下為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為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7) 이것은 서구의 공화주의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그것은 덕에 의한 정치와 공공선에 대한 중시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과 법의 지배 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유위는 유사성을 내세워 중국 고대의 공화정치로 규정한 것이다.

‘주소(周邵)’—을 중국 고대의 공화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왕이 없이 덕과 능력을 겸비한 두 명의 신하에 의한 통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또한 “귀천이란 마땅히 재능과 덕으로써 따져야 한다.”(『대동서·갑부』)는 유가의 현능설(賢能說)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강신수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인간관계를 말한다. 신(信)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즉 오상(五常)의 하나로서 유가에서 사회적 윤리의 원칙의 하나로서 지지하는 핵심적 가치들로서, 인간과 인간 간의,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와 공존을 가져오는 원칙들이다. “화오기기어지야, 불필장어기; 역오기불출어신야, 불필위기”은 대동사회의 경제원칙으로서, 노동에 대한 중시와 그 결과물의 공유를 의미한다. “부독친기친, 부독자기자”, “남유분, 여유귀”는 사회제도로서, 혈연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대동이 제시한 이러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틀은 강유위 대동사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강유위는 대동사상을 공양삼세설과 결합시켰는데,[8] 이를 서구 진화론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강유위는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역사적 진화를 이해하였다. 그는 승평세를 소강사회로, 태평세를 대동사회로 보았으며, 사회는 거란에서 승평으로, 승평에서 태평으로 진화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거란세를 군주전제로, 승평세를 군주입헌으로, 태평세를 민주공화로 해석하였는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정치형태뿐만 아니라 문교(文敎), 즉 문화와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 삼세는 공자가 그의 특별한 큰 뜻을, 『춘추』를 빌려 밝히신 것이다. …… 난세란, 문교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승평이란 점차 문교가 생겨나, 소강에 이른 것이다. 태평이란 대동세로서 원근대소가 하나같고, 문교가 완전히 구비된 것이다.[9]

강유위는 “천(天)도 변하지 않고 도(道)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天不變道亦不變)”, “기(器)는 변하지만 도(道)는 변하지 않는다(變器不變道)”라는 생각을 비판하고, 변화가 바로 천리(天理)라고 생각하였다. 곧 진화는 인간 생존의 숙명인 것이다. “물(物)은 새로우면 굳세고, 오래되면 늙는다; 새로우면 신선하고, 오래되면 부패한다; 이것이 천리이다.(夫物新則壯, 舊則老; 新則鮮, 舊則腐; 天之理也.)”[10] 이러한 변화의 근거는 당연히 『공양전』에 있다. 공자의 『춘추』,

---

8) 강유위의 삼세설은 서한의 동중서와 동한의 하휴에서 비롯되었다. 다음은 서한의 동중서와 동한의 하휴가 삼세에 대해 밝힌 것이다.
西漢董仲舒의 “張三世”: “『春秋』分十二世為三等, 有見、有問、有傳聞, 有見三世, 有聞四世, 有傳聞五世. 故哀、定、昭, 君子所見也; 襄、成、宣、文, 君子所聞也; 嘻、閔、莊、桓、隱, 君子所傳聞也. 所見六十一年, 所聞八十五年, 所傳聞九十六年.” 『春秋繁露·楚莊王』
東漢何休의 삼세설: “於傳聞之世, 見治起於衰亂之中, 用心尚粗觕, 故內其國而外諸夏, 先詳內而後治外; 錄大略小, 內小會書, 外離會不書是也. 於所聞之世, 見治升平, 內諸夏而外夷狄, 書外離會, 小國有大夫, 宣十一年秋惡侯會狄於攥函, 襄二十三年鄰婁荊我來奔是也。至所見之世, 著治太平, 夷狄進至於爵, 天下遠近大小若一, 用心尤深而詳, 故崇仁義, 譏二名, 晉魏曼多, 仲孫何忌是也.” 李學勤主編, 『十三經註疏·春秋公羊傳註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p.25.

9) “三世為孔子非常大義, 托之『春秋』以明之. …… 亂世者, 文教未明也. 升平者, 漸有文教, 小康也. 太平者, 大同之世, 遠近大小如一, 文教全備也.” 姜義華·張榮華編校,, 『康有為全集』二, 北京: 中人民大學出版社, 2007, p.324.

『역』등은 모두 변화 즉 진화의 이치를 "사람과 하늘의 도"로 표현하였다[11]라는 것이다. 또한 세상이 변하면 그에 맞는 도 또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춘추』는 삼세의 뜻을 밝혔는데, 거란세, 승평세, 태평세가 있는데, 각기 그 도가 다르다. 하나의 세(世) 안에서 천지와 문질삼통(文質三統; 하은주)이 이루어지며, 조리가 그에 따라 정해져서, 세상이 바뀜에 따라 쓰인다.[12]

강유위는 공양삼세설이 공자개제의 도라고 생각하고[13] 그것을 예운편의 대동소강설을 결합시켰다. 『공양』의 태평세를 『예운』의 대동으로, 그리고 승평을 『예운』의 소강으로 해석한 것이다.[14] 그리고 군주입헌제와 민주공화제를 통해 공양삼세설 해석하였다. 강유위에 의하면, 문왕이 군주의 인정(仁政)을 실시하던 시대는 거란세와 승평세이고, 요순이 구현하였던 태평세는 민주정이라는 것이다.[15] 그것은 단순히 삼세설의 역사적 복고론을 답습한 것은 아니다. "공자개제는 전적으로 요순문무에 의탁한 것(孔子改制, 專托堯舜文武)"이지만,, "『춘추』는 문왕에서 시작하고 요순에서 끝난다. 거란은 문왕이 다스리고, 태평은 요순이 이루었다."[16], "『춘추』거란은 요순의 도를 행하기 부족하다. 태평에 이르러서야 요순의 도가 이루어진다."[17] 고 함으로써, 강유위는 제도는 개혁될 수 있으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자가 『춘추』 또한 그런 의도를 후세에 전하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18]

이렇듯 삼세설과 공자의 대동사상의 영향을 받은 강유위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에 더하여 불학(佛學), 황로학(黃老學), 기독교의 평등사상, 루소의 민약론과 천부인권론,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들의 내용을 수용하여 중국인들의 유토피아를 완성하고 대변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금의 중국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상적 내용은 공상적 사회주의의 요소이다.

중국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는 1516년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로부터 마르크스 이전의 사

---

10) 『康有為全集』三, p.263.
11) "『春秋』發明改制, 『易』取其變易, 天人之道備矣." 『康有為全集』二, p.30.
12) "『春秋』發三世之義, 有據亂之世, 有升平之世, 有太平之世, 道各不同. 一世之中, 又有天地文質三統焉, 條理循詳, 以待世變之窮而采用之." 『康有為全集』三, p.263.
13) "孔子之道有三統、三世, 此蓋三統以明三世, 因推三世而及百世也. 夏、殷、周者, 三統递嬗, 各有因革損益. 觀三代之變, 則百世之變可知也. 蓋民俗相承, 故後王之起, 不能不因於前朝, 弊化宜革, 故一代之興, 不能不損益為新制。人道進化皆有定位, 自族制而為部落, 而成國家, 由國家而成大統. 由獨人而漸立酋長, 由酋長而漸正君臣, 由君主而漸為立憲, 由立憲而漸為共和. 由獨人而漸為夫婦, 由夫婦而漸定父子, 由父子而兼錫爾類, 由錫類耳漸為大同, 於是復為獨人. 蓋自據亂進為升平, 升平為太平, 進化有漸, 因革有由; 驗之萬國, 莫不同風." 『康有為全集』六, p.393.
14) "신명한 성왕과 공자는 일찍이 그것을 생각하고 걱정하여, 삼통삼세의 법을 만들었는데, 거란 이후 승평, 태평으로, 소강 이후 대동으로 나아간다.(神明聖王孔子早慮之慢之, 故立三統三世之法, 據亂之後, 易以升平, 太平, 小康之後, 進以大同.)" 『康有為全集』一, p. 6 .
15) "孔子據亂升平, 托文王以行君主之仁政, 尤注意太平, 托堯舜以行民主之太平." 『康有為全集』三, p.150.
16) "始於文王, 終於堯舜. 蓋據亂之治為文王, 太平之治為堯舜" 『春秋』
17) "『春秋』據亂, 未足為堯舜之道. 至終致太平, 乃為堯舜之道" 『康有為全集』三, p.150.
18) "공자가 『춘추』를 지어, 새로운 왕의 그를 빌려 제도를 개혁하도록 하였고, 세상사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선왕을 따르도록 하고자 했다.(孔子之作『春秋』, 托新王以改制, 而其於世事, 則欲人之法先王.)" 『康有為全集』三, p.142.

회주의를 말한다. 대동사상을 주창한 강유위는 중국에서는 엄격한 의미로의 공상적 사회주의자[19]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그의 사상이 서구의 공상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구별된다는 의미이다.

강유위의 『대동서』에는 세계정부, 공유제, 공유, 계획경제, 혼인과 가정, 남녀평등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자본주의 경제의 사적 전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하지만,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대립적 측면이나 계급투쟁을 통한 혁명 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주체의 차이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무산계급을 그 주체로 하므로, 최종적으로 무산계급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 이와 달리 공상적 사회주의는 봉건적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기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무산계급을 그 주체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고, 광범위한 사회적 약자층을 그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수단의 차이이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계급투쟁과 혁명을 수단으로 하지만, 공상적 사회주의는 사회개량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과학적 사회주의 보다는 공상적 사회주의에 가깝다.

게다가 간혹 공상적 사회주의는 도덕이나 종교 등 유심론적 측면에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공상적' 사회주의로 분류되는 것이다. 공자의 대동사상은 유가의 '인'사상에서 출발하여 고통 받는 민중에 대한 "불인지심(不忍之心)"을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강유위 대동사상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강유위는 "사람은 "불인지심"을 가지고 있다"(『대동서·甲部』)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의 선이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괴로움을 적게 주는 것은 선은 선이지만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행복이 작은 것은 불선이다"(『대동서·甲部』)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있어서 선의 기준은 행복과 괴로움의 정도이지만,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행복은 "…… 일하는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고, …… 재능이 많은 사람은 보수를 많이 받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으며 각각 그 힘을 나누어 사회에 이바지 하는"(『대동서·甲部』) 것에 있다. 공자의 '인(仁)' 또한 "범애중이친인(泛愛眾而親仁)", 즉 '인(仁)'이란 개인적 심성의 수양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공자의 '인'

19) 李澤厚, 「論康有為的『大同書』」, 『文史哲』, 2期, 1955; 蕭公權, 『近代中國與新世界: 康有為變法與大腿思想研究』, 南京:江蘇人民出版社, 1997, pp.448-449; 程恩富·汪桂進, 「論康有為的空想社會主義思想」, 『湘潭大學社會科學學報』, 2000.08; 操申斌, 「近代中國大同思想的比較研究及其啟示」, 『安徽史學』, 6期, 2005; 董重轉·王秀云, 「康有為大同思想略論」, 『山西高等學校社會科學學報』, 第19卷第5期, 2007.05 등이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대동사회가 구미 자본주의 국가를 모델로 삼아 부르주아계급의 이성적 왕국을 추구하였다고 하는 견해(湯志鈞, 「關於康有為的『大同書』」, 『文史哲』, 第1期, 1956; 李澤厚, 「論康有為的『大同書』」, 『文史哲』, 第2期, 1955; 王栻, 『維新運動』, 上海人民出版社, 1986; 吳廷嘉, 『戊戌思潮縱橫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8)나 유가적 유토피아, 공교의 계시록(徐允明, 「『大同書』的深意」, 『北京社會科學』, 第4期, 1988; 房德鄰, 『康有為的近代儒學』, 北京師範大學博士論文, 1990)이라는 등의 견해도 있지만(任軍, 「康有為大同思想的東方文化色彩」, 『歷史研究』, 第6期, 1993 참조)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구별하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사상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점이 그의 사회주의적 일면과 결합하여 유토피아로서의 대동사상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유토피아로서의 대동

1) 인(仁)을 기초로 한 유가적 유토피아

강유위의 대동사회는 우선 가족을 해체하고 천민(天民)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천민(天民)'이라는 말은 『맹자』와 『장자』 모두에서 언급된 말이다. "사람이 머물면, 그를 천민이라 부르고, 하늘이 도와주면, 그를 천자라고 부른다."[20](『장자·庚桑楚』) "천민이란, 천하에 다 행할 수 있게 된 연후에야 행하는 자이다."(『맹자·盡心上』)[21] 천민은 곧 천리를 잘 알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즉 현인을 의미한다.[22]

강유위는 가족이 인성의 정상적 형성과 발달을 저해하여 천민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곧 천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동사회의 실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 강유위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1. 풍속이 고르지 못하고 교육이 동일하지 못하고 가정마다 풍속이 다르므로 자손들에게 나쁜 점이 더 많이 유전되어 인간의 성품이 선하게 될 수 없다.
> 2. 가정마다 생활방식이 달라 병에 걸리는 일이 많고 체질이 유전되어 인류의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 3. 모든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지리적 환경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환경에 따라 기질이 편협해져서 누구나 크고 훌륭한 기상을 갖지는 못한다.
> 4.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학교에서 20년은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질 못하므로 인격이 고르지 못하고 완벽할 수 없다.
> 5. 일생동안 날마다 의사의 진찰을 한 번씩은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므로 신체에 질병이 생기게 된다.
> 6. 각 개인은 성장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않으므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반만 교육받는 일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태평세에는 가정이 사라지고 모두 학교에서 어린이를 교육하게 된다.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은 승평세의 제도이며, 전적으로 가정에서만 교육하는 것은 거란세의 제도이다.
> 7. 학교에 들어가서도 가정과 완전히 격리되지 못하면 교육이 혼잡해지고 고르고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 8. 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각자의 처자가 있게 되므로 공평무사한 천하위공의 경지를 이룰 수

---

20) "人之所舍, 謂之天民. 天之所助, 謂之天子."
21) "有天民者, 達可行於天下而後行之者也."
22) 馬洪林은 이런 점에서 강유위의 사상이 "천인합일"의 이상에서 출발하여, 자연과 사회를 대립적 통일체로 파악,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을 알아야 하고, 자연법칙에 따라 자연을 보호하고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馬洪林, 『康有為評傳』, 南京:南京大學出版社, 1998, p.203.

없다.

9. 가정이 있으면 부양의 걱정이 생겨 마음이 이기적이 되고 생각이 편협해져 끝내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된다.

10. 각자 이기적으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부도덕한 짓을 하는 성품이 더욱 조장되고 유전되어 인성이 선하게 될 수 없다.

11. 각자의 가정이 있으면 공적 비용이 부족해져 의사를 많이 양성하여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힘들어지므로 많은 사람이 빈곤하고 곤란에 처하게 된다.

12. 사유재산을 공유화할 수 없고 전 세계 사람을 공적으로 양육할 수 없게 된다.

13. 많은 공공의 경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육아원, 유치원, 양로원, 휼빈원을 운영할 수 없다.

14. 공공의 경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으므로 도로, 교량, 산천, 건물 등의 시설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 (『대동서·己部』)

이렇듯 가정은 사(私)적 이기심의 출발점이므로 공(公)적 사회인 대동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해체되어야 한다. 가정의 해체는 사유재산의 폐지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것은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의 모든 분야의 공유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이다. 즉 가정의 해체는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의 출발점이다. 더 이상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인류 전체로 사랑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인(仁)'사상의 발전이며 확대이다.

> 인류사회에 평등이 이루어지면 인의 사상이 크게 발전한다. ……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대의라고 부르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인이라고 불렀으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불인이라고 하였다. ……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동류애의 기본이며, 형제와 종족 간의 사랑은 동류애가 확대된 것이며, 부부간의 사랑은 동류 간의 사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동서·己部』)

강유위 대동사상의 특징은 인(仁)을 기초로 설계된 유토피아라는 점이며, 이것은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인자(仁者)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동류애(同類愛)를 우선으로 한다. 무릇 박애를 인이라고 한다. 공자가 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그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였는데, 실로 인의 본뜻이라고 할 수 있다."[2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강유위는 공자가 제자인 번지(樊遲)가 인(仁)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인 '애인(愛人)'이야말로 인(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인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24] 즉 인(仁)이란 인간의 본성[25]이므로, 그것을 정치에서 구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치이고, 대동의 실현은 바로 인(仁)에서 출발한다.

> 사람이 이러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이 없다면, 성인도 또한 그것이 없을 것이고, 평생 모든 인정(仁政)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정(仁政)은 불인인지심을 따라, 만화(萬

---

23) 『康有為全集』六, p.478.

24) "仁從二人, 人道相偶, 有吸引之意, 即愛力也, 實電力也. 人具此愛力, 故仁即人也; 苟無此愛力, 即不得為人矣." 康有為, 樓宇烈整理, 『孟子微, 禮運注, 中庸注』, 北京:中華書局, 1987, p.208.

25) "仁者, 天性之元德" 『康有為全集』六, 2007, p.472.

化)의 바다를 이루고, 모든 뿌리가 되고, 모든 근원이 되며, 하나의 씨앗이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가 되고, 한 방울이 큰 바다가 되고, 인도(人道)의 인애(仁愛), 인도(人道)의 문명, 인도(人道)의 진화가 태평, 대동에 이르는 것도, 모두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26]

인정(仁政)을 통해 대동을 실현하기 위해, 인(仁)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확대된다. 즉 "친친(亲亲)"의 단계, "인민(仁民)"의 단계, "애물(愛物)"의 단계이다. 즉 인(仁)은 개인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세계로 확대되며, 인(仁)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대동의 세계가 완성되고 더 이상의 전쟁과 살생이 없는 평화가 이룩된다. 이리하여 현실에서의 고통의 세계(苦界)는 사라지고 극락의 세계가 도래한다. "인민(仁民)"의 단계에서 민권의 상승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강유위는 "민권의 상승은 대동의 선구"(『대동서·乙部』)라고 일컫는다. 민권이 일어나면 '균산설(均産說)'이 대두된다.

이렇게 내면적 덕성인 인(仁)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공(公)'으로 발전한다. 사회의 모든 재산은 공공의 것이 된다. 그리고 강유위가 구상한 공유제 사회로서의 대동사회는 사적 재산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다. "각자 사유재산을 갖게 되면 빈부가 고르지 않게 된다.(既各有私產, 則貧富不齊)", "농업에서 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배고픈 백성이 나오게 된다.(農不行大同則不能均產而有饑民)", "공업에서 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 싸우게 되고, 장차 국가가 어지러워진다.(工不行大同則工黨業主相爭, 將成國亂)", "상업에서 대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속이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더 많은 재화가 사라진다.(商不行大同則人種生詐性而多餘貨以殄)" 사유재산은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원인이 된다. 이런 연유로 농업, 공업, 상업이 모두 공공의 것이 되고, 모두 공정부(公政府)에 의해 관리된다.

강유위의 유토피아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원칙을 충실히 수행하여 개인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천하로의 덕의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대동이라는 최고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평등과 공유제의 결합,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즉 인(仁)에서 시작된다고 함으로써 대동사회라는 유토피아의 건설을 정당화하였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대동의 도는 최고의 평(平)이고, 최고의 공(公)이고, 최고의 인(仁)이며, 최고의 다스림이다."[27]

2) 평등을 기초로 한 유토피아

태평의 세계에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다. 신하와 노예도 없고, 군주와 통령도 없으며, 교주와 교황도 없으니, 공자가 '용의 무리가 나타나도 우두머리가 없다'고 말한 바이며, 천하가 잘 다스려지는 세상인 것이다.[28]

'태평세'라고 불리는 강유위의 유토피아는 이렇듯 '평등'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

26) 康有為,『孟子微, 禮運注, 中庸注』, 1987, p.9.
27) "大同之道, 至平也, 至公也, 至仁也, 治之至也."『康有為全集』一, pp.6-7.
28) "太平之世, 人人平等, 無有臣妾奴隸, 無有君主統領, 無有教主教皇, 孔子所謂'見群龍無首', 天下治之世也."『康有為大同論二重』, 北京: 三聯書店, 1998, p.350.

홉 가지의 '계(界)', 즉 국가(國), 계급(級), 종족(种), 성별(形), 가정(家), 재산(産), 혼란(亂), 동류(類), 고통(苦)을 철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아홉 가지 '계(界)'의 존재에 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한다: '천하국가'에는 무릇 작은 계(小界)들이 있는데, 모두 큰 계(大界)에 가장 방해가 된다. 소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계의 해가 더욱 커지게 된다."[29] 이 세상은 지금 여러 개의 계(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곧 너와 나의 구별을 낳고 그로 인한 차별을 낳고 그리고 그로 인한 혼란을 낳아 결국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각각의 영역을 없애고 하나의 영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대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동의 세계가 되어야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세상의 혼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강유위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계(界)'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평등의 확립이다. 강유위에 의하면, "인류의 삶은 모두 하늘에서 비롯된다. 모두 형제이며, 실로 평등한데, 어찌 헛되이 신분을 구별하고 경중을 나누어 싫어하고 물리치는가?"[30] 이것은 루소의 천부인권설을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동중서(董仲舒)가『춘추번로·위인자천(春秋繁露·為人者天)』에서 말한, "산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천(天)이다.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은 天에서 비롯된 것이다."[31]과 같은 이해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고서천(高瑞泉)은『대동서』에서 말하는 평등이 중국 전통적 유가사상이 말하는 평등과는 다른 '보편적 평등'[32]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유위의 평등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 유가사상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강유위의 평등관은 전통적 유가사상에 대한 비판을 통한 극복인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정확히 '삼강(三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두 하늘이 낳은 것으로, 모두 하늘의 자식이고, 모두 둥근 머리와 두 다리를 지녔으며, 모두 종족 속에서는 지극히 평등하다."[33] 우선 그는 '군위신강(君爲臣綱)'에 대해 비판한다. 봉건사회에서는 신하는 군주를 천자(天子)라고 부르며, 그에게 무소불위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강유위에게 있어서 군주나 신하나 다 같은 사람일 뿐이고 모두 하늘의 자식으로 모두 평등한 존재이다. 나아가 그는 전통적 남녀관인 '부위처강(夫為妻綱)'에 대해 비판한다. "남자와 여자는 비록 모습이 다르지만, 천민으로서 천권을 함께 누린다. …… 공공평등론에 의하면, 군주와 백성은 마땅히 평등한데, 하물며 남자와 여자는 어떠하겠는가!"[34] 이에 더해 강유위는 가족 내의 위계질서인 '부위자강(父爲子綱)'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사람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낳는 것이다; 부모를 빌려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부모가

---

29) "人之恒言曰: '天下國家', 凡有小界者, 皆最妨害大界者也. 小界之立愈多, 則進於大界之害愈大." 康有為, 위의 책, p.170.

30) "夫人類之生, 皆本於天, 同為兄弟, 實為平等, 豈可妄分流品, 而有所輕重, 有所擯棄哉?" 康有為, 위의 책, p.162.

31) "為生不能為人, 為人者天也. 人之為人, 本於天也."

32) 高瑞泉, 「價值普遍主義的衝動及其限度: 以"平等"為例」, 『河北學刊』, 第4期, 2010, pp.34-40.

33) "人皆天所生也, 同為天之子, 同此圓首方足之形, 同在種族之中, 至平等也." 康有為, 『大同書』, p.78.

34) "男與女雖異形, 其為天民而共享天權也…… 以公共平等論, 則君與民且當平, 況男子之與女子乎!" 康有為, 위의 책, p.169.

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늘에 직접 속해있어 누구도 그것을 간섭하지 못한다. 무릇 일신은 일신이 자립함에 있지 사적으로 속해있는 것이 아니다."[35] 그는 삼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봉건적 가족에 대한 비판에서 봉건적 국가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내고, 가정이나 국가와 같은 '계(界)'를 철폐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강유위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 사회평등 실현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차별을 초래하는 가정, 국가, 종족, 등등의 굴레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사실 차별을 기반으로 한 통합정책에 불과하다.

> "갈색 인종이나 흑색 인종은 성정이나 외모가 무척 나쁘고 혹은 병이 있어서, 의사는 후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을 먹여서 그러한 인종이 씨를 잇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36]

강유위는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수한 인종 혹은 인간들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평등을 가장해 개인과 타민족의 권리를 부정한 것일 뿐이며, 아자(我者)와 타자(他者)를 구분하는 전통적 화이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민족 간의 평등에 대해서는 우수한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동화를 조장하는 한편, 한 사회 내에서도 그것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통합정책을 지향한다. 그것은 강유위 대동사상이 '평등' 이외에 다른 개인적 권리들은 중시하지 않고 있음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강유위는 평등을 '공리(公理)'로 격상시켰으며, 그에 따른 실리(實理) 또한 평등에서 출발하여, 평등에만 부합하는지에 따라 실리로 판가름 난다. 이것은 곧 평등에 대한 절대화이다. 사람이 사실은 질적으로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강유위의 평등에 대한 정당화 또한 사람의 개별성에 대한 비존중을 나타낸다.

> 사람은 대뇌와 소뇌를 가지고 있으며, 뇌의 기근에는 영혼이 있지만, 차이가 있어도 그 연유를 모른다. 천지의 기는 모든 사물에 존재하고, 사람은 사물의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입고 먹을 수 있으며, 처음에는 뛰어나고 어리석음이 같았다. 한두 명의 성인이 그 영명함을 조금 보태어 지혜가 생겨났다. 만 억 명 사람의 뇌가 합쳐져 지혜가 나날이 늘어났다; 억만 세상 사람들의 뇌가 합쳐져 지혜가 더욱 늘어났다; 그리하여 이(理)가 나타났다.[37]

이것은 강유위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인데, 여기서 사람은 만 억 명, 억 만 명의 하나로 묘사된다. 따라서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합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평등에 대한 도구주의적 이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등을 이해하고, 평등의 도덕적 함의를 간과하였던 것이다.[38] 강유위

---

35) "人非人能為, 人天所生也; 托借父母體而為人, 非父母所得專也, 人人直隸於天無人能間制之. 蓋一人身有一人身之自立, 無私屬焉." 康有為, 위의 책, p.78.

36) "其棕黑人有性情太惡、狀貌太惡或有疾者, 醫者飲以斷嗣之藥, 以絕其傳種." 『康有為大同論二重』, p.176.

37) "人之有大腦、小腦也, 腦氣筋之有靈也, 差不知其然也. 天地之氣, 存於庶物, 人能采物之美者而服食之, 始尚愚也同, 一、二聖人少補其靈明, 而智生矣. 合萬億人之腦, 而智日生; 合億萬世人之腦, 而智日益生; 於是理出焉." 『康有為全集』一, p.111.

는 근대 평등관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개념을 간과하고,[39] 평등을 단순히 사회적 지위의 평등으로 이해, 차별의 철폐를 통해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평등뿐만 아니라 개별적 인간에 대한 존중을 버린 것이다.

강유위가 꿈꾸던 대동사회는 정치적으로는 계급의 차별이 없고, 인간의 인간에 대한 억압이 없고, 종족의 차별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고, 남녀의 완전한 평등이 구현된 세계이지만, 인간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기계적 평등만이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인간의 고통을 없애고 싶었던 그는 결국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그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키고 마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강유위의 평등개념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대동사회라는 유토피아를 원하게 된 당시의 중국의 정세에서 비롯되었다. 강한 국가라고 믿었던 중국이 사실은 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것이 중국사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불평등을 국가의 흥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예를 들면, 인도와 러시아는 신분제도가 있고 불평등한 사회로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리석고 고통을 받으며,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人必愚而苦, 國必是亡)", 미국은 계급이 없고 평등한 사회로서 그런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롭고 즐거우며, 그런 나라는 반드시 흥하고 잘 다스려진다(人必智而樂, 國必盛而治)"고 본 것이다. 즉 그에게 있어서 평등은 부국강병을 성취하기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그의 이러한 오해는 중국전통적 평균관념으로 평등을 해석하였기 때문이다.[40] 공자에 의하면, "국가를 가진 자는 부족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不均)을 걱정하며, 가난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지 못함(不安)을 걱정한다. 무릇 고르면(均) 가난함이 사라지고, 화합하면(和) 부족함이 사라지며, 안정되면(安) 기울어지지 않는다."[41] 이에 따르면, 경제적 평등(均)과 사회적 화합(和)과 정치적 안정(安)이 결합된 사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자의 대동사상에 대한 청사진은 강유위 대동사상에 잘 반영되어 있다. 『대동서』는 강유위가 죽은 뒤 제자인 전정안(錢定安)이 정리하여 간행하였는데, 당시에는 평등개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근대 중국 사상가들의 평등에 대한 이해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동서』에는 유가전통의 혼인과 윤리사상을 부정하는 등 상당히 진보적인 면들이 주장되기는 하였지만, 그 한계는 또한 그의 평등사상의 허위성과 대동사상의 제한성에도 나타난다. 황인종 이외의 유색 인종에 대한 멸시, 심지어는 멸종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은 평등 또는 공평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현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이래 제기하고 있는 "함께 부유해지자"라는 구호는 자칭 "전통

---

38) 孫曉春·杜美玲, 「近代中國思想界對"平等"的誤釋—以康有為『大同書』為例」, 『探索與爭鳴』, 2015.08.

39) 물론 강유위가 자유권, 인권 등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강유위는 "사람은 하늘과 더불어 그 몸을 받았으니, 사람들은 하늘이 준 자유의 권리를 갖는다……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니, 이는 천리에 어긋난 것이다.(人人與天授之體, 即人人有天授自由之權…… 禁人者, 謂之奪人權, 背天理矣.)" 『康有為大同論兩種』, p.189. 그가 인권을 박탈하는 것을 천리에 어긋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사회가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40) 강유위는 공자의 대동사상을 바탕으로 근대 평등개념을 이해하였다.(孫曉春·杜美玲, 앞의 논문, 2015)

41)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論語·季氏』

적 평균사상의 승화"[42]라고 말해지며, 자유보다는 평등에 중점을 두고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평등을 내세운 유토피아가 강유위가 바라던 바대로 고통 없는 사회일지는 몰라도 모두가 행복한 '극락'의 세계일지는 의문이다.

3) 공유제를 통한 유토피아

> 오늘날 대동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없앤 후에야 가능하다. 무릇 농공상업은 반드시 公으로 귀속되어야 한다.[43]

강유위의 대동사상은 경제적으로 공유제를 지향하며, 그를 통한 "천하위공"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그 원인이 사적 재산에 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재산을 공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유위는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농업, 공업, 상업 세 가지로 나누어 공유제도를 통한 재산의 철폐를 주장하였다.[44] 우선 농업의 공유화, '공농(公農)'은 천하의 토지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토지를 경작할 수 있고, 개인은 토지를 매매하거나 점유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무릇 인민이 사유재산을 매매하고 사유재산을 갖도록 한다면, 빈부가 고르지 못하여 결국 균등함으로 말미암지 못한다."[45] 사적 재산의 하나로서의 토지의 소유와 매매의 금지는 균등함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 구체적 모델은 공자의 정전제이다. "남자가 살 곳을 잃어도 성벽 안에 들어간다면, 안락함과 평균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정전제를 만들었으며…… 전답과 재산이 평균에 이르면, 사람들은 심한 빈부의 차를 겪지 않으니, 이것이 승평제이다."[46] 고대 사회에서 성벽(隍)이란 곧 국가를 의미하였다. 국가가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주고 경작하게 하는 정전제 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다. 강유위는 공자의 정전제가 거란세에 적합한 제도이면서도 태평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47] 그러므로 공유된 토지가 농부(農部)에 의해 관리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정전제의 기본 시스템이 대동사회가 실현된 후에도 계속된다.[48]

공업 또한 공유화된다. 이것을 '공공(公工)'이라고 한다. "대동세의 공업은 천하의 공업을 반드시 공(公)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무릇 수많은 크고 작은 제조공장, 철도, 선박 모두 귀속

---

42) 顔廣明, 「中國特色社會主義公正理論的思想淵源—中國傳統的大同思想的揚棄」, 『貴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2012.

43) "今欲致大同, 必去人之私產而後可. 凡農工商之業, 必歸之公." 『康有為全集』一, p.156.

44) "균평의 뜻은 농공상을 막론하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다.(然均平之義, 則無論農工商而必行者也.)" 『康有為全集』一, p.420.

45) "蓋許人民買賣私產, 既各有私產, 則貧富不齊, 終無由均." 康有為, 『大同書』, p.280

46) "一夫失所, 若納於隍, 思所以安樂平均之. 故創為井田之制…… 田產平均, 人人無甚富貧, 升平之制也." 『康有為全集』一, p.419.

47) "공자의 정전 봉건제도는 거란세에 시행하기에 맞고, 그것을 확대하여 태평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孔子井田封建之制, 施之據亂世而準, 推之太平世而準者也.)" 康有為, 『孟子微』卷一, p.19.

48) "천하의 토지는 모두 공유해야 한다. 사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어야한다. 정부는 농부(農部)를 설립하여 천하의 농지를 총괄해야 한다.(天下之田地皆為公有, 人無得私有而私買賣之. 政府立農部而總天下之農田.)" 康有為, 『大同書』, p.290.

되며, 사공업은 허용되지 않는다."[49] 상업의 공유화인 '공상(公商)'은 천하의 상업을 모두 공공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경쟁을 지양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그에 의하면, "근세논자들은 통일의 고요함을 싫어하고 경쟁을 귀히 여기며, 경쟁하면 나아가고 경쟁하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난세에는 적합한 말이지만, 대동태평의 도에는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다."[50] 그러나 공유화만으로 대동사회에서 경쟁이 사라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분배에 있어서 임금제(工資制)를 실시하고, 개인의 자력(資歷), 재능, 노동의 성과와 사회적 공헌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차등적인 임금이 경쟁을 불러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또 다른 불평등과 신분제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한 문제는 강유위가 지향하는 공유제가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강제하는 전능(全能)정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강유위가 설계한 대동정체는 국계(國界), 즉 국가는 없지만, 최고의 기관인 "세계 대동 공정부"(약칭 공정부)가 존재한다. 그 아래 민(民), 농(農), 목(牧), 상(商), 금(金), 벽(辟), 수(水), 철로(鐵路), 우(郵), 전선(電線), 선(船), 비공(飛空), 위생(衛生), 문학(文學), 장지(奬智), 강도(講道), 극락(極樂) 등 20개의 부(部)가 공공의 사무를 나누어 수행하지만, 공정부가 그 모든 부서를 비롯하여 사회의 사적, 공적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공정부는 그 인재의 좋고 나쁨에 따라, 노력의 여부에 따라 노동의 가치를 따져, 그것을 10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동사회의 새로운 계급제도이다. 계급의 소멸을 주장했던 강유위는 이렇게 능력과 노동에 의한 계급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노동과 능력의 향상을 위해 경쟁하게 된다. 물론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전유되는 사회에서 임금을 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부는 한편으로는 노동과 능력을 미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그것을 강제한다.

대동사회에서는 최저 임금만으로도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충분하고, 모든 일을 기계가 하므로 인간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 노동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게다가 모든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배움을 강요받는다. "…… 노동자는 모두 배운 사람(學人)이며, 문학적 지식을 가진 자이다." 사람들은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부를 위해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다. 사유재산이 싸움의 근원이며, 가족이 바로 그 사유재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강유위는 대동사회에서 임신을 하면, "인본원"에 들어가 태교하게 하고, 출산을 하면 아이는 부모가 아닌 "육영원", "자유원" 등에서 양육하고, 6세에는 "소학원"에, 11세에는 "중학원"에, 16세에는 "대학원"에 입학시킨다. 20세가 되면 졸업하여 어엿한 노동자가 된다. 나이가 들면 "양로원", "혈빈원", "양병원", "의질원"에 들어가고, 죽으면, "임인원(任人院)"에 들어가 화장이 되어 비료로

---

49) "大同世之工業, 使天下之工必盡歸於公, 凡百工大小之製造廠, 鐵道, 輪船皆歸焉, 不許有獨人之私業矣." 康有為, 위의 책, p.296.

50) "近世論者, 惡統一之靜而貴競爭之器, 以為競爭則進, 不爭則退, 此誠宜於亂世之說, 而最妨害於大同太平之道者也." 康有為, 위의 책, p.285.

쓰인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의해 기획된 삶에 포섭된다.

이것은 대동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51] 사실 사회주의는 모든 소유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계급의 소유제를 부정하고 그것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강유위의 대동사회는 모든 사적 소유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자의 "천하위공"으로 묘사된 대동사회는 평균주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 이상사회인 동시에 플라톤의 극단적 공산주의를 재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부로 귀결되고 있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적 재산은 물론이고 사적 삶마저 모두 공유화된 사회를 실현하기위해서는 "공적" 정부라고 일컬어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필요한 것이다.

4)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동

1920년 양계초는 강유위의 『대동서』에 대해 세계주의와 사회주의와 많은 부분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52] 이것은 강유위의 대동사상이 단순한 일국적 공상적 사회주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강유위의 대동사회는 우선 대내적으로 가족과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하고 난 이후, 대외적으로 가족의 확장태인 국가의 소멸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다.

> 국가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의 참화가 혹심하고 백성의 생활이 도탄에 빠진 …… 본래 국가라는 것은 난세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체제이지만 승평의 세계에서는 전쟁과 살상의 근원이다. …이제 백성들의 참화를 구제하고 태평세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 대동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경을 철폐하여 국가의 구별을 없애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병합되어 가는 것은 국가가 도태되는 자연적 추세이니, 강대한 나라가 병합하고 약소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대동의 선구이다.(『대동서·乙部』)

국가의 소멸은 단계적으로 추구된다. 우선 "국가를 연합하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 이제 대동에 이르고자 하면 먼저 전쟁방지를 목표로 하는 미병회(弭兵會)를 주창하고 다음으로 연맹을 주관하고, 이어서 공의회가 주도하여 차례로 이끌어 나가면 반드시 대동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국가를 연합하는 체제가 세 가지 있으니, 첫째는 각국이 평등하게 연맹하는 체제이며, 둘째는 각 연방이 각각 내치(內治)를 행하면서 대정(大政)만 대정부하에서 통일하는 체제, 셋째로 국가의 칭호와 경계를 없애고 각각 자립주군이 되어 공정부하에서 통일되는 체제이다.(『대동서·乙部』)

다시 말하자면 국가를 연합하는 3단계이다. 첫째, 각국이 평등하게 연맹하는 체제를 구성하고, 두 번째, 각 연방이 각각 자치를 하면서 국가정무(大政)만 대정부하에서 통일하는 체제를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의 칭호와 경계를 없애고 각각 자립주군이 되어 공정부아래 통

---

51) 董重轉·王秀云, 「康有為大同思想略論」, 『山西高等學校社會科學學報』, 第19卷第5期, 2007.05.
52) 梁啟超, 『清代學術概論』,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1.

일되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를 연합하는 데 여섯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 국정의 차이 …… 연합정부가 국민을 직접 관할할 수 없었으니, 만약 영국에 대항하여 부득불 단결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연방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 …… 설사 연합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라도 강대한 여러 나라로 하여금 그 제재를 받지 않고 그 기틀을 견고히 하며 인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 연합하는 나라마다 크기가 다른 까닭에 또 어려움이 있다. …… 법률을 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또한 연합정부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수십 년 동안 시행이 되다가도 만약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다시 결렬될 수도 있을 것 …… (『대동서·乙部』)

공정부의 창설 이후 전 세계의 "계급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한다."(병부) 강유위 대동사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평등에 대한 강조이다. 그는 당시에 세계적으로 천민, 노예, 부녀의 차별이 가장 심하다고 지적하며, "불평등은 비단 천(天)의 공리(公理)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로 인류발달에 크게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공의정부의 창설은 대동의 시작"이다. 그러나 공정부의 수립은 "인종의 차별을 없애고 인류를 동일하게 하는 것"(정부), "성적 차별을 없애고 독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대동서·戊部』)에 있어서 강압성과 일방성을 지니고 있다. 송병록은 칸트의 '세계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칸트는 "주권국가들이 해소되어 전지구적 단일국가로 유합되는 세계정부, 즉 연방국가로서의 '세계공화국(Weltrepublik)'의 이념을 순수 이성적인 유토피아로 간직하지만, 현실적 조건의 고려 및 세계국가의 전제주의적 타락의 우려 때문에 단순히 국가주권의 일정한 자기제한만을 요구하는 국가연합이라는 소극적 이념으로 만족한다." 강유위 대동사회는 한 마디로 私를 公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정부가 아니라 세계정부와 그 하위에 자치정부를 통한 세계관리를 목표로 한다. 왕휘(汪暉)의 말처럼, 『대동서』에서, 강유위는 민족-국가도, 제국중심으로도 구체적 정치구조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단위로 '세계관리'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그 실질은 민족-국가기구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글로벌 정치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53]

이렇듯 강유위의 공정부는 '전제주의적 타락'의 우려가 농후하다. 그는 강유위는 국가의 해를 없애려면 우선 전쟁을 막고 국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 국가의 통합은 대동의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전 아메리카를 통합하고 독일이 전 유럽을 통일하면 대동에 가까워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국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과정일 뿐 국가가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세계를 통합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4. 정치적 실험으로서의 대동: 모택동의 "신촌"운동과 인민공사

모택동이 1917년 8월 23일 여금희(黎錦熙)에게 쓴 편지에서 공자가 "태평세를 목표로 내세

53) 汪暉, 『現代中國思想的興起』第二部上卷, 三聯書店三, 2015, p.746.

웠으나 거란세, 승평세도 끝내지 못했다. 대동이 우리들의 목표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강유위 대동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후 모택동이 설계하고 주작인(周作人)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신촌(新村)"운동과 그 후 그에 의해 추진된 인민공사(人民公社)와 더불어 강유위 대동사상을 실천에 옮겼다.[54] 1958년 8월 모택동은 하북성 서수현(徐水縣)을 시찰 갔을 당시 『공산당선언』, 『강령비판』과 더불어 『대동서』를 공부하라고 간부들에게 추천하기도 하였다.[55]

모택동은 『호남교육월간(湖南教育月刊)』에서 「학생의 임무(學生之工作)」라는 글에서 '신촌' 설립을 제의했다. 그는 공공 육아원, 양로원, 학교, 도서관, 은행, 농장, 공작창(廠), 소비사, 극장(公共劇院), 병원, 공원, 박물관, 자치회 등등을 짓고, 이러한 신학교, 신사회를 합하여 '신촌'이라 할 것을 주장하였다.[56] 이것은 강유위가 대동서에서 제시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후에 모택동이 지시한 인민공사 또한 그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택동은 강유위의 주장과 같이 가정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고, 『대동서』에서 말한 "공실(公室)에서 거주한다"라든가 "공주(公廚)에서 식사한다"라든가의 형식은 인민공사에서 공공숙사나 공공식당의 형태로 그대로 실현하였다.

등력군(鄧力群)은 그러한 신촌운동에 대해 "낭만적 색채의 공상사회주의"[57]라고 평가한다. 이전에 그는 중국 역사상 '대동'이상에 대해서 농민평균주의라고 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50년대 말 대약진과 인민공사화 운동이 시작되고 난 후, 평균주의를 공산주의적이라고 확대해석하였으며,[58] 결국은 그것을 실제로 시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후려(侯麗)는 대동사회 실현을 위한 다른 시도들, 홍수전의 태평천국운동이나 손문의 삼민주의 등은 모두 실패하였으나, 노동자계급과 공산당의 지도하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의 발전, 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의 발전, 계급소멸 등을 통해 모택동이 대동을 실현하였다고 평가한다.[59] 그러나 모택동의 그러한 시도는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닌 공상적 사회주의임이 분명하다. 물론 모택동 자신도 자신이 추진했던 신촌운동이 과학적 사회주의가 아님을 시인하기도 했다.[60] 그것은 손문의 평균주의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손문이 사회 재원을 평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생주의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착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61]

문제는 대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모택동의 일련의 시도에 대한 중국학계의 비판에도

---

54) 侯麗, 「理想社會與理想空間—探尋近代中國空想社會主義思想中的空間概念」, 『城市規劃學案』, 2010.07.20.
55) 趙雲山·趙本榮, 「徐水共產主義試點始末」, 『黨史通訊』, 1987.06.
56) 毛澤東, 『毛澤東早期文稿』, 長沙:湖南出版社, 1990, p.454.
57) 鄧力群, 『偉人毛澤東叢書—毛澤東的文化性格』,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4, p.233; 왕군(王君)은 "주관적 공상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王君, 「毛澤東與中國歷史上的"大同"理想」,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第31卷第4期, 2013.08)
58) 薄一波, 『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下卷, 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p.933.
59) 侯麗, 앞의 논문, 2010.
60) 1936년 모택동은 스노우와의 담화에서 "그 당시 내 사상은 자유주의, 민주개량주의, 공상사회주의 등의 사상이 섞인 커다란 잡탕이었어."라고 밝힌 바 있다. [美]埃德加 斯諾, 『西行漫記』, 董樂山譯, 北京:三聯書店, 1979, p.125.
61) "우리 국민당의 민생주의는, 목적이 바로 사회상의 재원을 평균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생주의는 곧 사회주의이고, 또한 공산주의이다." 孫中山, 『三民主義』, 北京:九州出版社, 2011, p.181.

불구하고 그것은 현재 중국에서 또 다른 기획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전통의 대동사상이 중국특색사회주의 이론의 역사·문화적 기초이며 이론과 사상의 연원의 하나[62]라고 주장하며, 중국정부가 후진타오정권이래 선전해온 '화해사회' 또한 강유위의 대동이상의 정치적 실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많은 점에서 강유위의 그것과 상통한다는 것을 여러 논문에서 주장되고 있으며,[63] 아직도 그것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강유위 대동사상의 기획에 따르자면 그것은 중국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요즘 중국의 여러 해외정책을 감안한다면 세계적 규모의 대동사회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그저 황당한 추론으로만 여길 수는 없다.

5. 끝맺는 말

강유위(1858-1927)는 서방열강의 중국침략으로 중국이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하고 중국 민족이 생존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대동사회를 구상하였다. 그는 당시 중국사회를 "끝없이 푸른 하늘과 넓은 대지는 큰 도살장이며 감옥일 따름"(『대동서·甲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동사회이다.

그러한 구상은 상당히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1884년 그는 "연대동지의(演大同之義)"를 통해 "대동"을 내세우기 시작하였으며, 1885년에는 대동의 제도를 『인류공리』라는 이름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886년 그는 다시 『공리서(公理書)』를 썼는데, 그 내용은 기하학에 대한 것이지만 이 또한 대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류공리』와 『공리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출판되지 않았다. 실제로 강유위의 초기 대동사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실리공법전서(實理公法全書)』에서이다. 『실리공법전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하원본』의 형식을 모방하여 지은 책으로 "총론인류문" 1장에서 평등을 내세운 공법 제정의 취지를 논하였다. 그러나 강유위의 대동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물론 『대동서』에서 이지만, 그것은 강유위 사후에 1920년에나 출판되고, 그 전에는 그의 기타 저작에 두루 산재되어 표현되어 나타난다. 『강자내외편(康子內外篇)』(1886), 『춘추동씨학(春秋董氏學)』(1896), 『예운주(禮運注)』(1897), 『맹자미(孟子微)』(1901), 『중용주(中庸注)』(1901), 『춘추필삭대의미언고(春秋筆削大義微言考)』(1901), 『논어주(論語注)』(1902) 등등이 그것인데, 즉 유가사상에 대한 저서들에서 대동사상이 표현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강유위의 대동사상이 중국 전통적 유가사상에서 제목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유가의 핵심사상인 '인(仁)',

---

62) 顔廣明, 「中國特色社會主義公正理論的思想淵源—中國傳統的大同思想的揚棄」, 『貴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2012.

63) 魏明, 「康有為的"大同思想"與"和諧社會"」, 『青島行政學院學報』, 第6期, 2007; 張俊, 「大同思想及其對和諧社會建設的現實意義」, 『襄樊職業技術學院學報』, 2010; 宋思偉, 「"大同"思想與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 『山東社會科學』, 2009 등.

‘균(均)’, ‘공(公)’을 중심으로 중국적 사회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 측면은 많은 대륙의 학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손효춘(孫曉春)과 두미령(杜美玲)은 강유위 대동사상을 계급적 시각에서 평가함에 따른 오류를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강유위 대동사상은 중국문화전통이 추구해온 이상사회의 집대성이라고 평가하였으며,[64] 하일민(何一民)은 강유위의 대동학설은 중국의 전통적 소생산평균주의를 초월하여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65]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좌옥설(左玉雪)는 대동서가 과학성과 민주성 결여하고는 있지만, 강유위의 공상 사회주의는 전제제도에 대한 중국인민의 반감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현대 사회주의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음[66]을 강조하기도 한다. 위명(魏明)은 강유위 대동사회를 첫째, 평등과 선거를 기초로 하는 민주정치체제, 둘째, 공유제를 위주로 한 경제체제, 셋째,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완전한 사회보장체계, 넷째, 문명적 문화교육위생오락체계라고 평가한다.[67] 정장청(丁長清) 또한 근대중국사회에서 대동사상이 중국이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데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하였다[68]고 주장한다. 이들의 긍정적 평가는 대동사상은 현대 중국 사회주의 형성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이 주도하는 “대동세계”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동세계는 서방 공상사회주의에서 비롯하였지만, 화해사회는 마르크스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과 “삼개대표”이론에서 비롯되었으며, 대동세계는 초점이 ‘동(同)’, 사회주의 화해사회는 초점이 ‘화해’라는 점, 대동세계는 계급의 소멸을 주장하고, 사유재산 부정하지만, 화해사회는 모순충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강유위 대동세계와 사회주의 화해사회의 공통점이 보다 강조[69]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주의적 성격과 평등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양자는 방향성이 같다. 후진타오정권 이래 중국 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주의 화해사회의 기본특징은 ‘공평정의’로, 현 단계 공평정의를 첫째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 분배평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의 형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적 사회보장체계의 형성을 위해, 강유위가 제시한, “공양(公养)”, “공교(公教)”, “공휼(公恤)” 등의 제도에 대해, 당의 17대 보고에서는 사회보험, 사회구조, 사회복리를 기초로, 기본양로, 기본의료, 최저생활보장을 중점으로, 자선사업, 상업보험을 보충으로, 사회보장체계를 보다 빨리 완성할 것을 제시하였다.[70]

이렇듯 강유위 대동사상은 중국 근대 공상적 사회주의로서 신중국 건설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실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중국에서의 유토피아 건설은 토지문제와 농민문제의 해결에 있음을 상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긍정과 그를 통한 분배와 평등의 실

---

64) 孫曉春·杜美玲, 앞의 논문, 2015.
65) 何一民, 「對小生產平均理想的超越—論康有為的大同學說」, 『社會科學研究』, 1998.
66) 左玉雪, 「康有為『大同書』體現出的社會意義」, 『文學教育』, 2014.
67) 魏明, 「康有為的“大同思想”與“和諧社會”」, 『青島行政學院學報』, 第6期, 2007.
68) 丁長清, 「論“大同”思想的形成發展及其對近代中國社會的影響」,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1992.
69) 張欣, 「康有為的大同世界與社會主義和諧社會之比較研究」, 『知識經濟』, 2008.
70) 昝愛民·李珍梅, 「從康有為的“大同世界”看今日中國的和諧社會」, 『邊疆經濟與文化』, 第1期, 2009.

현, 그리고 여성해방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 교육과 정신문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이론적으로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강유위 대동사상은 물론 초보적이고 공상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봉건적 왕권세습제와 신분제가 인민 고통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그것이 백성을 먹이로 삼아 제왕 자신의 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전쟁을 통해 인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비판들을 통해 구체제를 극복하고 신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신분제가 없고, 국경의 구분이 없고, 민족의 구분이 없고, 전쟁이 없으며, 인민은 고도의 민족적 자치를 향유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 공정부의 관원과 의원은 모두 대동 공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모든 법률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되는 대동세계라는 유토피아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막연한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것은 이제 중국적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구호로 쓰이고 있으며, '중국적'에서 벗어나 '세계적'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공상적'인 선전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근덕,「그 대동사상과 이상사회」, 철학문화연구소,『철학과 현실』, 1992.03.
함홍근,「강유위의 사상에 대하여:대동사상을 중심으로」, 역사학회,『역사학보』8, 1955.09.
康有為, 樓宇烈整理,『孟子微·禮運注·中庸注』, 北京:中華書局, 1987.
_____,『康有為大同論二重』, 北京:三聯書店, 1998.
_____, 姜義華·張榮華編校,『康有為全集』, 北京:中人民大學出版社, 2007.
高瑞泉,「價值普遍主義的衝動及其限度:以“平等”為例」,『河北學刊』, 2010.
董重轉·王秀云,「康有為大同思想略論」,『山西高等學校社會科學學報』, 第19卷第5期, 2007.
鄧力群,『偉人毛澤東叢書—毛澤東的文化性格』, 北京: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4.
馬洪林,『康有為評傳』, 南京:南京大學出版社, 1998.
毛澤東,『毛澤東早期文稿』, 長沙:湖南出版社, 1990.
薄一波,『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下卷, 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房德鄰,「康有為的近代儒學」, 北京師範大學博士論文, 1990.
梁啟超,『清代學術概論』,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1.
蕭公權,『近代中國與新世界:康有為變法與大腿思想研究』, 南京:江蘇人民出版社, 1997.
孫曉春·杜美玲,「近代中國思想界對“平等”的誤釋—以康有為『大同書』為例」,『探索與爭鳴』, 2015.08.
宋思偉,「“大同”思想與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山東社會科學』, 2009.12.
徐允明,「『大同書』的深意」,『北京社會科學』, 第4期, 1988.
[美] 埃德加 斯諾,『西行漫記』, 董樂山譯, 北京:三聯書店, 1979.
顏廣明,「中國特色社會主義公正理論的思想淵源—中國傳統的大同思想的揚棄」,『貴州社會主義學院學報』, 第4期, 2012.
吳廷嘉,『戊戌思潮縱橫論』,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8.
王　君,「毛澤東與中國歷史上的“大同”理想」,『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第31卷第4期, 2013.08.
王存剛,「近代中國空想社會主義與傳統的大同思想和均平思想」,『天津職業大學學報』, 第1期, 1995.
王　栻,『維新運動』, 上海:人民出版社, 1986.
汪　暉,『現代中國思想的興起』第二部上卷, 北京:三聯書店, 2015.
魏　明,「康有為的“大同思想”與“和諧社會”」, 中共青島市委黨校,『青島行政學院學報』, 第6期, 2007.
李澤厚,「論康有為的“大同書”」,『文史哲』, 第2期, 1955.
任　軍, 康有為大同思想的東方文化色彩」,『歷史研究』, 第6期, 1993.
昝愛民,·李珍梅,「從康有為的“大同世界”看今日中國的和諧社會」,『邊疆經濟與文化』, 第1期, 2009.
張　欣,「康有為的大同世界與社會主義和諧社會之比較研究」,『知識經濟』, 2008.02.
丁長清,「論“大同”思想的形成發展及其對近代中國社會的影響」,『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1992.
左玉雪,「康有為『大同書』體現出的社會意義」,『文學教育』, 2014.
程恩富·汪桂進,「論康有為的空想社會主義思想」,『湘潭大學社會科學學報』, 2000.08.
操申斌,「近代中國大同思想的比較研究及其啟示」,『安徽史學』, 第6期, 2005.
趙雲山· 趙本榮,「徐水共產主義試點始末」,『黨史通訊』, 1987.
湯志鈞,「關於康有為的『大同書』」,『文史哲』, 第1期, 1956.
何一民,「對小生產平均理想的超越—論康有為的大同學說」,『社會科學研究』, 第1期, 1998.
韓　力,「近代中國空想社會主義思想評述」,『黑龍江教育學院學報』, 1996.
侯　麗,「理想社會與理想空間—探尋近代中國空想社會主義思想中的空間概念」,『城市規劃學案』, 2010.07.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康有為, 大同, 空想社會主義, 毛澤東, 中國社會主義
	영문	Kang You-wei, Datong, Utopian Socialism, Mao Ze-dong, Chinese Socialism

Kang You-wei's Da-tong Thinking as Utopian Socialism in Modern China

Kim, Hyun-Ju

Kang You-wei(1858-1927) thought that the Chinese society was just like an abattoir and a prison in the early modern times. And he planned the utopian society named "Da-tong" to save Chinese people got into semi-colonial and semi-feudalistic situation by the invasion of the western states. His Da-tong thinking was influenced by both the eastern and the western ideas, especially Confucius's Da-tong theory, the view of Gong-yang San-shi(公羊三世說), Ren(仁) thoughts, the western theory of natural rights, and the utopian socialism, etc. His utopian socialism combined with Confucian philosophy is a cornerstone to help Chinese Socialism settled and developed. Many utopian socialist movements failed in modern China, but Kang's Da-tong thinking has achieved some result. It provided the modern Chinese to accept the Socialism considered as a heterogeneous ideology, and has been of great service to the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of Chinese Socialism.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현주 / 金賢珠 / Kim, Hyun-Ju		
	소 속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Em@il	mir8566@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7월 27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